



〈안치홍〉 〈나지완〉

얼마 전 2010년 신인 지명회의를 통해 새로 KIA 타이거즈의 식구가 될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의 '아기 호랑이'들은 계약 절차를 거친 후 올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선배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또 다른 식구의 합류를 앞두고 KIA 선수들은 '올챙이'적 생각으로 기분이 새롭다.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른 이는 신인왕을 향해 진격중인 안치홍이다. 최연소 '미스터

“신참들이 온다”...설레이는 虎心

올스타' 안치홍은 선배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팀의 막둥이. 2010 프로야구 지명회의를 보면서 안치홍은 극적이었던 1년을 실감했다. 안치홍은 “지난해 훈련을 하다가 말고 야구부 전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명 결과를 지켜봤었다”며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기쁨을 나눴던 서울고 1년 후배 최유진은 9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함께 그라운드

안치홍·김선빈 등 1~2년 전 드래프트 감회 져어

‘불혹의 투혼’ 이종범 “결혼 빨리했으면 아들뻘들”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꼬꼬마’ 김선빈에게는 두 번째 후배다.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은 모자란 키 때문에 2008년 2차 6지명으로 KIA에 입단했다. 하위 지명을 받아 대학진학을 고민하기도 했었지만 프로행을 선택한 김선빈은 타고난 타격센스와 피나는 노력으로 단신의 한계를 딛고 1군 무대를 누비고 있다.

팀내 홈런 3위를 달리며 2년차 징크스를 잊은 나지완은 김선빈과 입단 동기. 2차 1번으로 KIA맨이 된 나지완은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뒤 프로 무대를 밟은 케이스다. 신인고를 졸업하던 2004년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단국대로 진학을 했던 나지완은 방향도 했다. 하지만 거포 본능을 발휘하며 대학무대를 평정한 끝에 2008년 KIA 2차 1

순위로 당당히 프로선수가 됐다.

2000년대 KIA의 유일한 대졸 1차 지명인 투수 오준형도 신인들을 보는 기분이 남다르다. 오준형은 “대졸 선수들은 지명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업자 신세 되기 때문에 신인 지명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1차 지명을 받았을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06년 2차 1지명으로 프로에 데뷔한 손영민은 잊지 못할 신고식을 치렀다. 손영민은 마무리 캠프에서 LG와 연습경기를 하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장이 꼬여 병원에



〈손영민〉 〈김선빈〉

실러가기도 했다. 프로 4년차가 된 손영민은 이제 박빙의 상황에서 출격하는 필승계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불혹의 투혼’을 선보이고 있는 이종범은 21년 터울의 후배와 한 무대에 설 지도 모른다. 이종범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아들과 함께 야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농담으로 17번째 후배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난 이겼다!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가 20일(한국시간) 토론토에서 벌어진 로저스 컵 테니스 토너먼트 2라운드 경기중 카자흐스탄의 아로슬라바 슈베도라에게서 1점을 따낸 뒤 기뻐하고 있다. 세레나가 2대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추신수 ‘뱅크 아론상’ 후보에

올 시즌 불방망이 맹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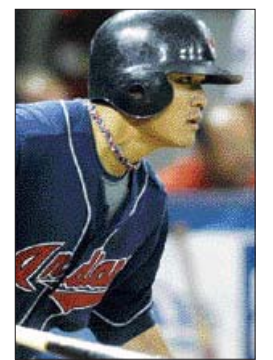
ML 팬투표로 수상자 선정

올 시즌 미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뱅크 아론상 후보에 올랐다.

뱅크 아론상은 메이저리거의 진정한 홈런 왕으로 평가받는 갈타자 아론의 업적을 기려 그 해 양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타자에게 주는 상으로 아론이 베이브 루스의 홈런(714개)을 넘어선 지 25주년인 1999년 제정됐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거 사무국이 20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올해의 뱅크 아론상 후보 90명 중 한 명에 포함됐다.

양 리그 30개 구단에서 팀마다 3명씩 올린 후보 중 9월15일까지 1차 팬투표를 통해 각 구단 대표를 한 명씩 뽑는다. 다시 9월16~30일 2차 팬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는 월드시리즈 4차전 때 발표된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함께 아스트루발



카브레라, 조니 페랄타를 후보로 추천했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5에 홈런 14개, 타점 65점을 올렸다.

클리블랜드가 소속된 아메리칸리그에서는 0.383으로 메이저리거 전체 타율 1위를 달리는 조 마우어(미네소타 트윈스)와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매리너스)가 후보로 올랐다.

또 지난해 8년간 1억8천만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마크 테세라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최다 수상자로 4차례 이 상을 받은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는 부상으로 추천을 받지 못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메이저리거 홈런 1위(39개)인 알버트 푸홀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타점 1위 프린스 필더(밀워키 브루어스)가 추천됐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1위 사피나 첫 판 탈락

39위 레자이에 역전패... 로저스컵테니스 이번 속출

테니스 여자 세계랭킹 1위 디나라 사피나(러시아)가 올 시즌 두 번째로 투어대회 첫 경기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사피나는 20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TA 투어 로저스컵(총상금 200만달러) 단식 2회전에서 아라반 레자이(39위,프랑스)에 1-2(6-3 2-6 4-6)로 역전패했다.

시작하자마자 첫 게임을 브레이크당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한 사피나는 어렵게 첫 세

트를 따냈지만 이후 제대로 서비스를 넣지 못하고 무려 17개의 더블 폴트를 저질러 무너졌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서브게임을 4차례 내놨다.

패배가 확정된 순간 코트에 라켓을 내동댕이치며 화를 낸 사피나는 눈물 맺힌 얼굴로 “이건 재앙이다. 내 서비스를 넣지도 못했고 감정도 통제하지 못했다. 팀포를 조절해야 했는데 반대로 점점 짜증이났다”며 아쉬

워했다.

한편 부상 후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리아 샤라포바(49위·러시아)는 사피나와 똑같이 17개의 더블 폴트를 쏟아내기도 수 차례 탈락을 펼치며 끈질기게 따라붙은 끝에 시빌라 바바(29위·오스트리아)에 2-0(6-3 7-6(5))으로 이겨 16강에 올랐다.

전날에도 비너스 윌리엄스(3위·러시아)가 탈락하고 전 세계랭킹 1위 킬리스터(벨기에)가 복귀전에서 승리한 터라 이번 대회에서는 이틀째 톱랭커들과 복귀 선수들의 회비가 엇갈렸다. /연합뉴스

볼트 2관왕 눈앞

남자육상 200m 1위로 결승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남자 200m 1위로 결승에 진출, 2관왕을 눈앞에 뒀다.

볼트는 20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슈타디온에서 계속된 제12회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08로 결승 진출자 8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7일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58이라는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볼트는 21일 오전 3시35분 열리는 200m 결승에서 우승하면 작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2관왕을 달성한다. /연합뉴스

순천효천고 전국대회 첫 우승 무산

미추홀기 고교야구 결승

인천제물포고에 1대5 패

순천효천고의 전국대회 첫 우승이 무산됐다.

순천효천고는 20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인천 제물포고와의 미추홀기 결승에서 1-5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장승고, 동산고, 덕수고 등 강호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한 순천효천고는 국내야구 최장신(207cm) 최안 장민익을 선발로 내세워 우승에 도전했지만 제물포고의 막강 타선에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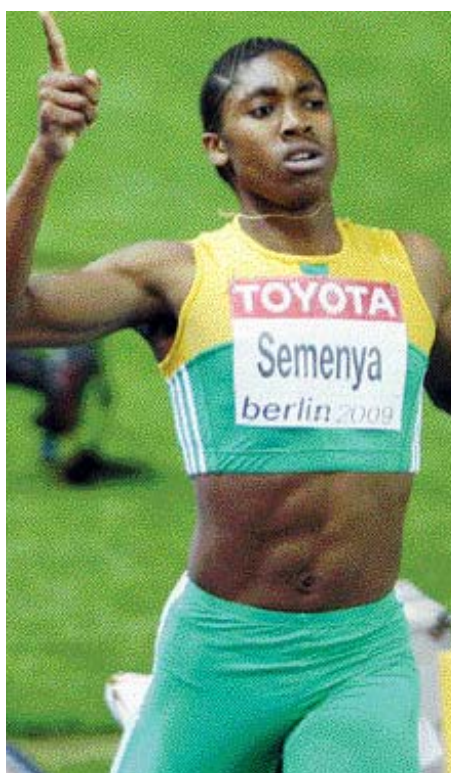
2회 연속 2루타로 1점을 내준 장민익이 3회 다시 1점을 내주며 0-2가 됐다. 4회초 투아웃 이후가 승부처가 됐다.

쌍볼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은 장민익이 볼에 맞는 볼을 허용한 뒤 허동민에게 1타점 2루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어 이태양이 등판했지만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마운드의 난조 속에 타선도 불발이었다. 4회말 주도성의 3루타와 이태양의 적시타로 만든 1점이 순천 효천고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상효곡·이현호로 이어지는 제물포고의 마운드에 막힌 순천효천고는 7-8-9회 삼자범퇴로 물러나는 등 4개의 안타로 1점을 뽑는데 그쳐, 1-5로 저 전국대회 첫 우승에 실패했다.

한편 투수 이태양은 대회 감투상, 내야수 주도성과 박성규는 각각 최다 타점상(7타점)과 미기상을 수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아공 세메나, 남자야? 여자야?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중반에 접어들어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자 선수에 대한 성 정체성 논란이 트락을 달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18세인 캐스터 세메나다. 짧은 머리와 강인한 신체 근육만 봐서는 좀처럼 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세메나는 20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슈타디온에서 끝난 여자 800m 결승에서 1분55초45라는 시즌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이날 결승에 앞서 ‘남아공육상연맹에 세메나에 대한 성별검사를 요청했고 주수위 내 답변이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세계 육상선수권 여자 800m 금

강인한 신체 근육·빠른 기록

성 정체성 논란에 뜨거워 관심

않았기에 세메나는 제재 없이 결승전에 나갔고 예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IAAF가 세메나의 성 정체성을 의심한 건 기록이 작년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세메나는 지난달 31일 아프리카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1분56초72로 올해 주니

어와 시니어를 통틀어 가장 빠른 기록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2분04초23보다 8초나 빠르다. 1,500m에서도 4분33초25였던 기록을 지난 2일 4분08초01로 25초나 앞당기는 등 수상직은 기미가 보여 IAAF가 직접 진상파악에 나선 셈이다.

스포츠에서 성별 논란은 종종 있었다. 백이면 백 ‘여자 경기에 남자’가 출전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었고 그 반대 경우는 없었다.

IAAF는 지난 1991년 성 증명 검사를 없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 성별검사를 도입했다가 1999년 폐지했다. /연합뉴스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개막

오늘부터 31일까지 무등경기장

‘제3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한다.

KIA 타이거즈가 주최하고 광주야구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북 지역의 10개 중학교 팀이 참가, 5개팀씩 2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후 승률에 따라 조별 1, 2위팀을 가르게 된다.

이후 조별 1, 2위팀 총 4개팀이 크로스조 준결승 대결을 갖은 뒤 승리팀 2개팀이 최종

결승전을 펼치게 된다.

우승팀과 2, 3위팀 등 4개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주어지고 참가하는 전체 팀에게는 야구 용품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또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의 시상도 준비 됐다.

21일 오전 10시 A조 화순중과 이수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하루에 4경기를 치른다. 21일부터 24일까지 하루에 4경기가 열린 뒤, 28일 잔여 4경기를 치르면서 예선전이 마무리 된다.

29일에는 A조 1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가 각각 준결승전을 갖는다. 30일에는 결승전이 치러지며 대회 기간 총 23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